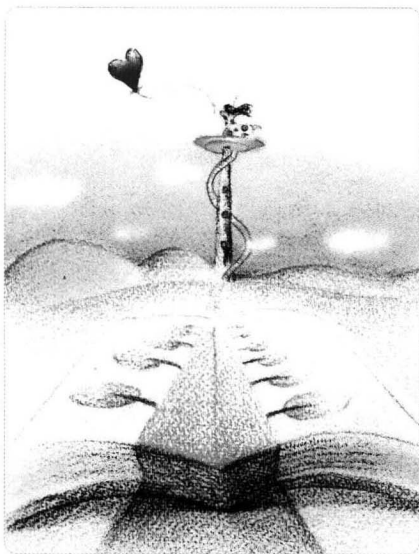


치유서의 조건.

김형경과, 심윤경의, 소설.



일러스트 · 신창우

내가 진행하는 독서치료 모임에서 치유서의 조건과 관련하여 흔히 제기되는 질문이다.

참_여_자_갑 ● 저는평소에 시나 소설을 읽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어려울 때 혼자서 어떻게 하려는 것보다 책이 있으면 쉬워요. 마음이 맑아지고 위안이 돼요. 제 생각에는 치유서의 범위를 넓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참_여_자_을 ● 저도 동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신영복 선생님 같은 분들의 책을 읽고 도움을 받은 부분이 컸거든요. 그런 계통의 책들을 읽으며 어려운 시기를 통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치유서를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렇다. 우선 참여자 갑과 을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상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책을 마음의 안식처로 간주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 책을 마음의 양식이라고도 부른다. 가을철이 되면 책을 읽고 마음을 살찌우자고 하는 구호도 나부낀다. 다 같은 취지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집집마다 속배포의 의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책임기는 무척 소중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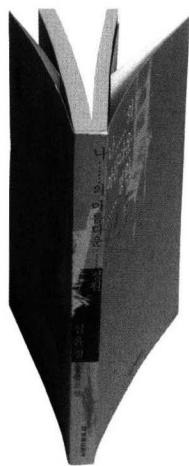
문헌에 보면 서양도 이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면 기원전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과 예술은 사람의 정서를 위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고대 이집트의 람세스 2세는 테베 Thebes에 있던 자신의 궁전에 상당한 규모의 도서관을 만들고, 그 도서관을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 The Healing Place of the Soul' 라고 불렀다. 또 스위스에 있는 세인트 골St. Gall의 중세 대수도원 도서관에는 '영혼을 위한 약 상자 The Medicine Chest for the Soul' 라는 현판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책의 힘을 사람의 정서 문제와 연결시켜 관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으로, 위의 참여자 갑과 을의 입장은 새로운 흐름과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일정 정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식에 안주하는 면이 있다.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는 면도 보인다. 물론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상식적인 생각이 일정한 가치를 가지는 면이 있지만, 때로는 시효가 지난 경우도 있다. 미분화된 전통사회의 구조와 수준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래서 논의의 틀이 너무 일반론적으로 흐르게 되는 흠이 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의 논지대로라면 치유서 아닌 것이 없게 된다. 그 어떤 책이라도 치유서가 된다. 다른 것과의 '차이' 를 내고 '분리' 하는 작업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논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 어디까지를 치유서로 볼 것인가? 치유서와 치유서 아닌 것이 따로 있는가? 나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나는 처음부터 치유서로 태어나는 책은 없다고 생각한다. 독자의 상황에 맞게 '발굴' 되고 '선정' 되었을 때 치유서가 된다는 생각이다. 다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사회도 복잡하게 달라졌으므로 치유서를 좀더 분화된 관점에서 해석하고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마음의 양식', '안식', '위로' 정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상한 감정wounded emotion과 아픈 마음hurt mind을 돌보아 줄 치유제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치유서의 '효과'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발굴' 과 '선정' 의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접



《나의 아름다운 정원》 심윤경 지음 | 한겨레신문사 | 278쪽 | 값 8,000원

근해 갈 것을 주문하는 대목이다.

내가 지금까지 치유서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입장에서 특히 주목하는 문학작품이 있다. 그동안 진행해 온 독서치료 모임을 통해 어느 정도 효과가 드러난 작품이다. 참여자들은 이 작품을 읽고 거듭 좋은 치유적 반응을 보인다. 다름 아닌 김형경의 장편소설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전2권), (푸른숲, 2003)이다. 이 책은 여성으로 산다는 것의 특별한 어려움을 어릴 때 입은 상처로 풀어낸다.

작품은 사랑 불능의 여자 주인공 세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세진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이내 남동생이 생긴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떨어져 외가에서 지내게 된다. 그곳에서 소외감을 몸에 익힌다. 그후 부모의 이혼이라는 상처를 입는다. 결과적으로 이제 30대 후반에 이른 세진에게는 이 세상에 혼자 버려졌다는 거부감이 핵심 정서로 남는다. 이 때문에 세진은 항상 분노와 피해의식에 젖어 있다. 사랑 불능, 성 거식증에 빠져 있다.

작가는 이처럼 유년기에 세진의 내면에 각인된 상처가 결과적으로 사랑-성-삶에 대한 불능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세필로 그려낸다. 상처를 직시하고 불능을 치유함으로써만 그 출발이 가능해지는 정체성 찾기의 지난한 여정을 성실하게 추적한다. 작가는 이 모든 과정에 정신분석학적인 기법

을 활용한다. 나는 김형경의 소설에 치유효과를 더 하는 요소가 바로 이 새로운 기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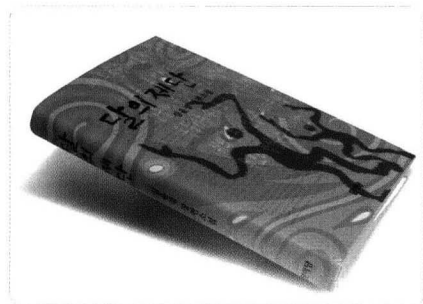
유년기의 상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또 한 사람의 작가가 있다. 바로 심윤경이다. 심윤경은 그의 첫 번째 작품 《나의 아름다운 정원》(한겨레신문사, 2002)에서 완고하고 심술궂고 하루도 입에서 욕이 떨어지지 않는 할머니를 등장시킨다. 이 할머니는 소설이 진행되는 동안 아버지, 어머니, 초등학교 동구, 동구 동생 영주, 모두의 의지를 꺾어놓고 감정에 상처를 입힌다. 결국 꺾인 의지와 상한 감정은 가장 약한 동구의 난독증과 어머니의 정신병원 입원으로 결말이 난다.

심윤경의 두 번째 작품 《달의 제단》(문이당, 2004)에는 '패악' 하는 할아버지가 등장한다. 소설이 진행되는 동안, 쇠락한 명문 종가의 위신과 문화를 되살리는 일에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매달려온 할아버지의 무지막지한 '권력' 앞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허망하게 쓰러진다. 아버지의 자살, 호적상의 어머니 해월당 유씨의 때 이른 죽음, 생모의 불행한 삶. 어디 하나 정 붙일 데 없는 주인공 '나'는 종가의 종손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언제나 불안하고 불행하다. 이제 23세의 '나'는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망과는 달리 아주 어긋난 길을 걷고 만다. 심신장애자인 행랑어멈의 딸과 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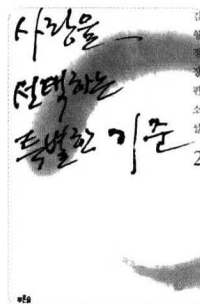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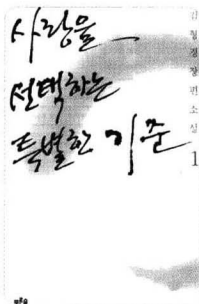
섞게 되고 임신까지 시킨다. 성장과정의 상처는 결국 뒤틀리고 왜곡된 사랑의 형태로 나타난다.

내가 진행하는 독서치료 모임의 경험에 비춰보면 김형경과 심윤경의 작품은 좋은 치유서의 반열에 오를 만하다. 무엇이 이 작품들을 효과적인 치유서로 만드는가? 이 작품들 가운데 어떤 요소가 독자의 마음속에 동일화-카타르시스-통찰의 연쇄반응을 불러오는가? 우선 두 작가의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마음의 상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리고 상처의 진원지를 가정으로 지목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인간 심리의 깊은 곳을 파헤치는 작가들의 탐구력 또한 호소력이 있다. 작품속에 드러나 있는 이와 같은 특징들이 독자로 하여금 지금까지 무의식의 심연에서 잠자고 있던 지난 경험에 직면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 중요한 치유효과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

이 글을 쓴 김정근은 도미니칸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토론토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과 교육학을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장과 대학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같은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수이며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의 지도교수로 있다. 주요 논문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문제와 독서치료> <공공도서관 독서치료의 장이 될 수 있는가?>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이 있다.



《달의 제단》심윤경 지음 | 문이당 | 284쪽 | 값 9,000원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전2권)》 김형경 지음 | 푸른숲 | 각권 320쪽 내외 | 각권 값 8,500원